

힝클리 대관장의 초기 5년간의 성역



1998년 11월에 중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태풍 미치에 의한 피해를 정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했다.

“우리는 개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게리 아반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1995년 3월 12일에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임되었다. 그때로부터 교회는 총회 원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 성전은 과거 십여 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건축되고 헌납되고 있다. 2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 센터가 10월에 헌납될 것이다. 이 건물은 교회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표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대관장으로 재임한 지 5년을 맞아 힝클리 대관장은 단순히 사실이나 역사, 프로그램, 원리에 맞춘 문답식 인터뷰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내용의 뉴스 인터뷰에 기꺼이 응했다. 온두라스의 어린 고아 소녀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서렸다. 힝클리 대관장은 그 소녀와 그 소녀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의 근본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소녀의 부친은 태풍 미치로 인한 홍수 속에서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다 숨졌다. 그 아이의 모친은 더 일찍 돌아갔다. 힝클리 대관장은 1998년 11월에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그 두 살 난 어린 아이를 만났다. 그 후 몇 주 후에 가진 대관장단 성탄절 예배 모임에서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이가 성탄절에 캔디와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캔디를 받았습시다.” 당시 일을 회상하며 힝클리 대관장은 말했다. 교회 복지부를 통해 기증된 장난감, 옷, 음식, 의료품 등과 함께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근본 원리인 것이다. 일 천 일 백만 명의 회원들이 한 어린 소녀를 염려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원리입니다. 그 근본 원리는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을 개인적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비유에서 개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 회원수가 6백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천이백만 명이든, 오천만 명이든 간에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극이 일어난 후 저는 온두라스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자신의 감독이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완수되는 데 여러 날, 여러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감독은 홍수가 밀려드는 것을 보고 트럭을 갖고 와드 회원들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트럭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는 보트를 구해 자기 회원들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감독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구제의 손길을 펼쳐 일을 완수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무리의 목자인 감독이나 지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회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와드의 수가 이백이건 오백이건 일만이건 오만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법세계적인 조직의 경이와 위엄을 남자와 여자와 소년과 소녀들의 삶에 가져다 주는 일,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진수입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세계 각지에 있는 충실한 성도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으며 교회의 장래에 대해 확신을 나타내 보였다. 그분은 교회 회원들을 선을 행하고자 하며,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보고자 하며,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며,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위대한 신앙”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분은 교회의 성장과 변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십일조는 주님의 재정의 법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백성들의 신앙, 즉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그들의 마음, 지상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자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려는 그들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충신했고, 지금도 충실합니다. 저는 그들이 미래에도 충실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의 법과 그와 연관된 금식 헌금의 법이라는 원리를 지켜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나갈 것입

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회전 의자를 돌려 앉으며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마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과부의 동전 그림이 들어 있는 작은 사진들을 선반에서 집어 들었다. 그는 사무실에 그 그림을 두는 이유는 이렇다고 설명했다. “헌금이 부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에게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자갑이며 우리는 그러한 기금을 집행할 크고도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주님의 기금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현명하고 신중하며 조심하며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기를 원합니다.”

헝클리 대관장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성전 건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해 말이면 100개의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차 대회에서 세웠던 목표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르는 온갖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은 헌납식에 모인 청중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로운 성전 건립으로 인해 헝클리 대관장의 여행 일정이 더욱 늘어났다. 그분이 교회 대관장에 성임되었던 1995년의 기자 회견 중에 자신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떠한 대관장도 그보다 널리 그리고 자주 여행한 사람은 없었다.

교회 회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박감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헝클리 대관장은 자신이 여행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분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여행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

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게 힘이 남아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는 점차 나이들어 가고 있습니다. 6월이면 90이 될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때로 제 발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소망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백성들이 교회의 대관장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봅니다. 저는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 저는 그들의 삶의 질과 힘과 선함과 충실함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볼 때, 교회의 미래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갑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충실함이란 놀라운 환경 속에서 교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신중히 고려할 강하고 충실하고 유능한 말일성도들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되기를 희망했다. “교회 회원들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의를 가진 사람으로 보다 널리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느 종교 집단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편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의 원리 및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정을 좋아합니다. 저는 상호 존중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의 성장이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촉진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실질적인 진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교회에 드리는 권고입니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것이 저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처치 뉴스에서 기사 발췌. 2000년 3월 4일

모든 개종자는 우리의 “위대하고 엄숙한 책임”임

새로운 회원을 우정으로 감싸 안으며 그들이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기까지의 중대한 적응 기간을 겪는 동안 불편함을 덜어 주는 것이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이 재임한 지난 5년 동안 중점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다.

1999년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그 분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오랜 친구와의 교제를 멀리하고 색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박찬 새로운 사회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개종자들이 길을 찾도록 그들을 돕는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합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말

씀’(모로나이사 6:4)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헝클리 대관장은 자신이 영국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 침례 받았던 한 젊은이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그가 언젠가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런던에 있는 지부에서 작은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개종자에서 회원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봉사하던 조직의 회장은 사랑이 부족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지른 저의 친구를 다소 몰인정하게 방법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날 밤 그 청년은 그 역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심하여 그 전세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말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돌아가지 않겠어.”

그는 점차 비활동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락이 끊어진 채로 여러 해가 흐른 후 헝클리 대관장은 그가 사는 주소를 알아내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퇴직하고는 스위스로 이사했던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제가 스위스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찾기 위해 가던 길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멋진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불꽃이 오래 전에 꺼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였으나 다시 신앙의 불꽃을 지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달 전에 숨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 소식을 편지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그 분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제가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위안이 되지만, 한편으로 제가 실패하였기에 슬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현재 개종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을 계속 활동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곧 교회의 도처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형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개종자 모두가 소중합니다. 개종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개종자 모두를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77년 5월호, 47~48쪽)

가족의 중요성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1995년 9월 23일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에 의해 선포됨—은 헝클리 대관장이 과거 5년간 줄기차게 강조해 온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헝클리 대관장은 1998년 전미 지방 자치장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국가도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가족의 역량보다 더 높이 오를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도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여러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서나 전세계로 여행하며 가족이야말로 온갖 사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입증된 자유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1998년에 케이프 베르데에서 가진 대중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헝클리 대관장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이로 구성된 가족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어떠한 국가도 그 국가를 이루는 가족의 역량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가정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분은 말했다.

교회의 예언자로 봉직하는 동안 헝클리 대관장은 부모들에게 어린이들을 의 가운데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 고귀한 시간을 사 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일같이 함께 기



헝클리 대관장은 가족들에게 가정의 밤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격려했다.

모하고
자녀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십
시오.”라고 권고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축복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 준다면 그들의 마음에 훌륭한 느낌을 심어 줄 것입니다.”라고 헝클리 대관장은 1998년 8월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회원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의 밤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자녀들을 불러모으고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2000년 4월 4일자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교육을 활성화시킴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이 1995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된 직후 대관장단은 신권 집행 위원회를 소집하고 교회에서 복음 교육을 향상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에 따라 성인반과 청소년 반이 같은 교재로 교육을 받음에 따라 주일학교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998년에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에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체제에 따라 교회의 성인 남녀는 시리즈로 계속 발행되는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통해 같은 공과를 배우고 있다.

복음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지난

해 교회의 지역 지도자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서한에서 새로운 교사 향상 계획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절정에 달했다. 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복음 교육에 대한 강조를 재개한 것은 가정이나 교회 모임에서 복음 교육을 향상시키고 회원들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에 의해 지난 1999년 연차 대회에서 설명되었고 현재 지역 단위 조직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구가 마련되어 있다. 주일 학교 시간에 교육될 새

로운 “복음 교육” 12주 과정; 가정이나 교회에서 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개정되고 향상된 *교사*, 가장 중요한 부류: 복음 교육을 위한 *자료집*; 새로운 소책자인 *복음 교육을 향상시킴: 지도자 지도서*; 지도자와 교사를 위한 분기별 교사 향상 모임; 보다 작고 발전 도상에 있는 교회 단위 조직을 위한 *교수법 지도서*; 새로운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6과에 나오는 “복음 교육 및 지도력” 등이 있다. (“복음 교육”,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94~98쪽 참조)

처치 뉴스에서 기사 발췌, 2000년 3월 4일

물몬경 이정표

전세계에 일억 권이 출판, 배부됨

최근에 물몬경의 출판부수가 일억 권을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1999년 말에 배포된 물몬경 수는 구천 구백 이십만 권이었다. 출판 및 배부와 책임자인 케이 더블류 브리에 의하면 하루 만 오천 권의 비율로 배부되었다고 볼 때 이월 말이

나 삼월 초에 일억 권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1990년대에 매년 5백만 권이 출판, 배부되었다.

현재 39개의 언어로 물몬경 부분역이 이루어 졌으며 완성된 언어만도 54개에 달한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1994년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몬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든 은혜와 어두운 무덤에서 나아오신 그분의 신성과 실체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간증은 그 진실성과 확실성을 기도하는 사람이 성신의 능력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약

속이 되어 있어 이곳에서 읽혀지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성도의 빛, 1994년 5월호, 72쪽)

일억 권의 대다수가 영어로 출판되었지만, 1999년에 백 오십만 권이 출판된 서반어판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양이 다른 언어로 배포되었다. 다른 번역으로는 주요 유럽 언어 및 아시아 언어로부터 에픽어, 링갈라어, 쇼나어, 우르두어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와 초트질, 맘, 켓치와 같은 멕시코 및 중미 언어들을 들 수 있다. 그 외 아라비아어, 러시아어, 힌두어 등으로 번역되었다.

몰몬경을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76년, 182쪽]이라고 했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또한 “몰몬경과 계시가 없다면 우리의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몰몬경의 출판은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교회 사명의 중심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하다. 몰몬경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독자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일억 권의 몰몬경이 출판되기까지 169년이 걸렸다. 현재 출판되는 추세로 간다면 20년 안에 또 다시 일억 권이 출판될 것이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2000년 4월 22일



몰몬경 초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2000년 9월호



1. “이 사람은 거인과 싸웠습니다.”와 같은 실마리를 주어 어린이들에게 경전에 나오는 영웅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영웅들로부터 그들이 침례 성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토론한다. 노아, 왕비 에스더, 암몬, 룻, 모세, 다니엘, 요셉 스미스, 사라, 엘마, 마리아, 레이맨인 사무엘, 모로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웅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경전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이 침례 성약을 지키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이 시편 119편 105절을 암송하도록 돕는다. 나이가 적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위에 나오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들려준다. 아이들에게 솔과 같은 간단한 의상을 걸치게 하거나 영웅을 묘사하는 (경전과 같은) 받침을 들고 다니게 한다.

2. 사전에 몇몇 어린이에게 힐라맨의 이

천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반원들에게 들려주도록 준비시킨다. (앨마서 53~57장 참조) 함께 나누는 시간에 그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거나 역할 담당극을 하게 한다. 그 용사들이 순종하며 의롭게 살도록 가르친 분들은 어머니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몰몬경 이야기”(어린이 노래책, 118~119쪽)을 부른다. 이들이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엘마의 아버지가 한 일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한다. (모사이야서 27:11~14 참조) 부모님과 선생님과 지도자들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가르친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는다. 어린이들에게 의롭게 살며 침례 성약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지도자들이 하거나 이미 해온 것에 대해 적거나 그리게 한다.

3. 추가 자료로 “책 아버지씨의 가장 훌륭한 도움”, 2000년 9월호 친구들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 친구들, 2000년 9월호,

10~12쪽; “빌리를 위한 금식 기도”, 친구들, 2000년 2월호, 14~16쪽; “사무엘의 경전”, 친구들, 1999년 6월호, 2~3쪽; “우리 가족의 첫번째 금식 기도”, 친구들, 1999년, 12~13쪽; “음식을 위한 축복 기도”, 친구들, 1999년 6월호, 14~16쪽 등을 참조한다.



상호부조회에 대한 조명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여성들이 가정과 가족에게 하는 일들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에 상관없이 여성들은 가정과 가족과 지역 사회를 강화시킵니다. 자매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이 지난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의 초점은 자매애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자매들이 영적인 힘을 키우고,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자매들에게서 이러한 새로운 초점을 통해 이룩한 발전과 강화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쁩니다. 와드 및 지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과거에 행하여 온 일들을 평가하고 장래에 자매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킬 방법들을 결정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우리 각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도자를 돕고 지지하는가? 모임에 참석할 때 계획된 프로그

램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랑과 배움의 정신으로 참석하는가?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 자매들은 교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청녀에 대한 조명

의미 있는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의 활동을 계획함

본부 청녀 회장단

여러분에게는 청녀 지도자로서 청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재능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즐거운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름에서의 봉사는 청녀들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이 의미 있는 모임에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호 향상 모임에 대한 공과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 활동에 대한 주일 공과는 상호 향상 모임을 하는 중에 어떤 구체적인 가사 기술에 대한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호 향상 모임은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려야 합니다.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재 1998년, 217쪽 참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호 향상 모임을 2~3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된 계획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개회, 청녀와 청남은 단합심을 기르고, 재능을 함께 나누며, 소속감을 키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주님의 영을 느끼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인다.

2부, 반 또는 그룹 활동: 활동의 초점을 주일학교 공과에서 배운 원리나 봉사,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재능 및 기술 개발 등에 둘 수 있다.

3부, 연습 또는 사교 활동, 때때로 청녀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연습을 하거나, 스포츠 게임에 참석하거나, 사교 활동을 갖는 목적으로 청녀 그룹으로나 청남들과 함께 모일 수 있다.

여러분이 건전하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석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청녀들에게 기회를 열어 주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상호 향상 모임(뮤추얼)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재

활동화시키는 귀중한 방편이란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음은 청소년과 성인 지도자들이 의미 있는 상호 향상 모임의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 지침이다.

이 상호 향상 모임이 열릴 날짜:

개회 순서를 계획한다.

감리

개회 찬송

1. 개회 기도
2. 음악 (음악 순서, 새로운 노래 연습 등등)
3. 말씀

반 또는 그룹 활동

1. 이전의 반 또는 그룹 활동을 평가한다.
2. 초점을 두어야 할 원리를 결정하고 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3. 반 또는 그룹을 계획한다.

연습 또는 사교 활동 (선택)

1. 이전의 연습 또는 사교 활동을 평가한다.
2. 초점을 두어야 할 원리를 결정하고 필요 사항을 파악한다.
3. 연습 또는 사교 활동을 계획한다.

초등회에 대한 조명

나의 복음 표준

본부 초등회 회장단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의의 기슴판을 달며... 나의 완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27:15~16)

가정에서나 초등회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완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을 견딜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초등회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도록 돕기 위해 복음 표준 열 한 가지가 주어졌습니다.(그림 참조)

“나의 복음 표준”은 나의 달성의 날 책자

의 마지막 쪽에 나옵니다.(물품 번호 35317; 친구들, 1999년 4월호, 8~9쪽 참조)

내년에 가정의 밤 시간이나 공과반, 또는 함께 나누기 시간에 이러한 표준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주일학교 공과 주제와 관련된 표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 어린이에게 하나의 표준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게 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적용할 만한 표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복음 표준에 따라 실천할 때 더욱 주님의 갑옷을 갖추어 입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의 복음 표준을 기억하고 실천의 축약된 계를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신에 대해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과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단결한 용감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릴 것만을 원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릴 용감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육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신성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느끼는 때 도우미(조력)를 받겠습니다.

나는 불바탕(불)을 전파하겠습니다. 나는 내기,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지금 실천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하에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조명

모든 회원은 교사이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교사이거나 앞으로 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교육의 내용과 효율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복음 교사들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러한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의 직업은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교사였으며, 그분은 우리 각자가 그와 같은 위대한 봉사에 있어서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하십니다.”(“복음 교육”,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4쪽)

옥스 장로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추구에 도움이 되

는 효율적인 복음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교사로서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반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부름을 받아 들이고 가르치며, 2)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필요 사항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3) 규정된 과정 자료를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원리와 성약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며, 4)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과를 가르치고자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며, 5) 영에 의해 이끌리는 대로 가르치며(교리와 성약 42:12~14 참조), 6) 가르침이 학습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4~98쪽)

효율적인 복음 교육은 단순히 공과를 하는 것 이상이 요구됩니다. 효율적인 복음 교육이란 형클리 대관장이 교사들에게 주었던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충족시킬 것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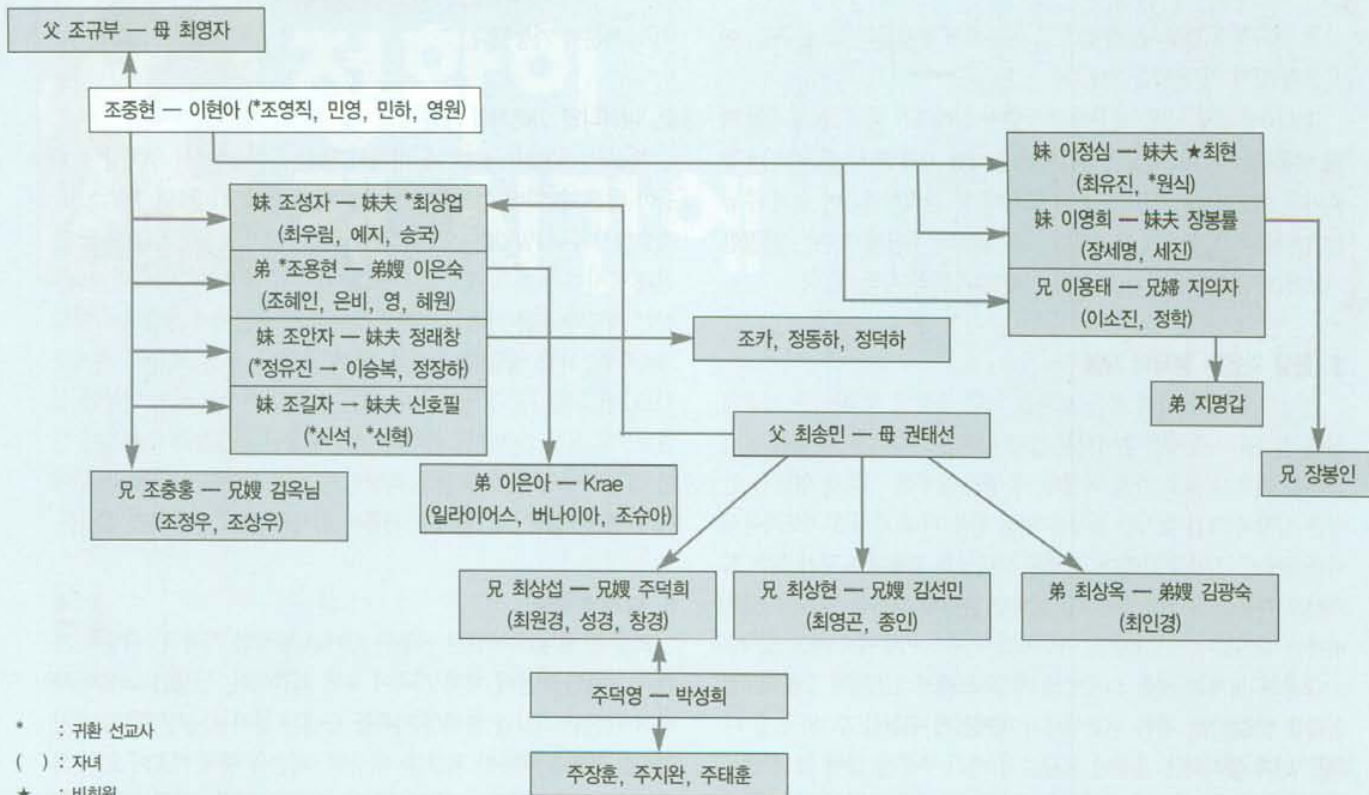
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주님과 이 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고든 비 형클리 대관장의 가르침[1997년], 619~620쪽)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2000년 4월 1일에 열린 제170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39명의 새로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이 칠십인 제3정원회, 제4정원회, 제5정원회 회원으로 각각 지지를 받았다.

칠십인 제3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일본 오사카 출신의 히로시 나가무라 장로(60세)는 니산 에어 서비스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스테이크 선교부장, 지역 관리 역원, 스테이크장을 역임했다. 부인은 요코 나가무라이다.

조중현 형제의 가족과 방계 친족 가계도



부산 서 지방부 합창 대회 모습.

부산 서 지방부

열린 교회

지난 6월 18일(일) 대신 지부에서는 지방부장단 제1보좌 안종원 형제의 감리와 지방부 선교부장인 최선명 형제의 사회로 10명의 구도자와 개종자와 지방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선교사들의

음악 발표에 이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얼마 전 개종한 구포 지부 차현중 형제는 우정의 밤을 통해 회원들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토론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고 침례받은 후 놀랍게 변화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정춘영)

회원 선교 사업

지난 6월 25일(일) 대신 지부에서는 김영일 지방부장의 감리로 각 지부의 지부장단과 각 보조 조직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선교 사업을 주제로 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김영일 지방부장은 모든 사람에게 승영의 기회를 주기 위한 회원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도자를 각 가정으로 초대할 것을 강조했고, 온 마음을 다해 선교 사업에 임해 주기를 당부했다.(정춘영)

지방부 합창 대회

지난 7월 16일(일) 대신 지부에서는 김영일 지방부장의 감리로 회원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8월에 있을 지방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합창 대회를 가졌다. 김영일 지방부장은 준비된 노래



왼쪽: 안양 스테이크 합창 대회에서 노래하는 안산 와드 회원들. 오른쪽: 홍성 지방부 초등학교 여름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는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교리와 성약 25:11)이라고 말했다. 지정곡으로 173장 '선한 영향 주는 삶'과 146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을 불렀으며 지부의 단합을 잘 보여 주었던 구포 지부가 으뜸상을 받았다.(정춘영)

안양 스테이크

합창 대회

지난 6월 24일(토)일 오후 5시 30분에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합창 대회를 가졌다. 각각 169장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지정곡으로 하고 가고파, 노을, 향수, 목련화, 남촌, 냉면 등의 자유곡을 합창했다. 시종일관 잘 정돈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은 그동안의 많은 성도들의 노력이 빛났으며 성도들에게는 보다 더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상 이름을 하늘의 소리, 영혼의 소리 등으로 지음으로써 더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심상문)

광주 스테이크

여성 대회

지난 6월 17일(토)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인 최종배 형제의 감리하에 여성 대회를 가졌다. 상호부조회 선언문 낭독 후 신애리, 명현숙 자매의 말씀과 안혜정 자매의 플룻 연주가 있었으며, 와델 자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서로 사랑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최종배 형제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과 낙담하고 슬플 때는 방문 교사에게 전화하라고 권고했다.(박유미)

전주 스테이크

회복된 복음의 음악

"음악과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복음을 이해함"이라는 주제로 7월 16일(일)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은 대전 선교부가 주최가 되어 전

주 스테이크 형제 자매들을 초청했고 구원의 계획을 노래로 들려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150여 명의 성도와 선교사들이 참석한 이 모임은 슬라이드와 음악을 통해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김논산)

청주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지난 6월 25일(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한인상 성전장과 함께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한인상 성전장은 21세기에 말일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4가지, 즉 1. 특정 교파, 2. 에이즈, 3. 마약, 4. 도덕성의 상실—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들이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특히 십계명)에 충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이명숙)

홍성 지방부

초등학교 여름 캠프

지난 7월 26일(수)~28일(금)까지 2박 3일간 칠갑산 자연 휴양림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성구는 신명기 28장 2절~6절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였다. 첫째날은 지시표에 따른 목표 달성을 통해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날은 등산과 캠프 화이어가 있었다. 마지막 날은 간증과 경험들을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모임은 캠프 며칠 전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한 지부장 가족,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참석한 서정희 자매, 그리고 50여 명의 식사를 담당한 황은미 자매 등 많은 성도들의 모범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한영미)

“나를 따르라”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김숙경 자매



2000년 6월 11일 침례일은 제 생애에 있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조금은 두려웠지만 저의 형제가 같이 와 주어서 너무나 기뻐고, 저를 침례로 이끌어 준 자매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가까운 길을 멀리, 아주 멀리 돌아서 온 느낌이었지만, 지치고 힘겨운 느낌보다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작은 평화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조용히 여 울져 왔습니다.

서른 다섯 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유년 시절이 그랬고,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겠다고 떠돌던 이십 대 역시 절망과 잿빛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형제를 만나기 이전,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므로 너무나 힘겨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너무도 절박하여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매 순간 순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떤 남자의 음성에 잠을 깬습니다. 그건 귀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는 음성이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10여 년전의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제 자신도 혹시 내가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반영되어 꿈을 꾸지 않았나 하며 가슴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형제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저는 또 다시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저의 주변을 힘껏 사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제가 노력한 만큼 채워지지 않았고, 제가 주는 만큼 잘 사랑해 주지 않았으므로 외롭고 쓸쓸했으며 절망적 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계속되었고, 특히 2년 전에는 원래부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기를 좋아하는 저의 형제가 앞장 서서 했던 노동 조합의 일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은 나름대로 열심히 극복해 낼 수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무의미함이 늘 그림자처럼 우울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잘못된 행위들과 부딪칠 때

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어떤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에 대한 고마움 이외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에서 책 한 권을 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어느 외국인의 신부님이 쓰신 것을 번역한 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나,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 제가 평소에 의문시 하던 성경 구절을 풀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쓰여진 그분의 신앙 생활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첫째, 항상 기도하라, 둘째, 항상 사랑하라, 셋째,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것이었는데, 웬지 모르게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나요? 저는 그동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김 없이 다 주었는데 또 무엇을 사랑하고 기다리나요?’ 라고 속으로 외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 외면하고 제 뜻대로, 제 욕망대로 살아가고, 넘어지고, 상처입고, 그 분을 부정해도, 그 분은 항상 더할 수 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절 지켜보고 계셨음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말 저의 형제가 아산으로 복직 발령이 나 이사를 왔습니

순간 10여 년 전의 새벽에 들었던 그 음성이 전해져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음성은,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던 그 모습은 환경도 환경도 아닌 바로 내게 직접 오셨던 그 분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으로 돌아가 신앙 생활을 하게 해 주실 것과 저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어려운 이웃의 힘이 되어 주는 자원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안미희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저기 집 근처의 교회도 가보고, 제게 맞는 영적 느낌이 오는 교회를 찾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안미희 자매님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무척 반가웠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곧 자매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순수한 영혼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나 물문경은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제게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 교회가 참된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죄 사유함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회 후 침례를 결정했으나, 마음 한 구석에 확신이 없었기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물론 물까지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제 자신을 무척 겸손하게 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면 형제와 함께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금식으로 머리가 조금은 멍해지기 시작했고 무심결에 자매 선교사들이 준 *리아호나* 5월호 "친구들"을 펼쳐 여기저기 건성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책을 덮었을 때, 맨 마지막 표지에 "날 따르라"는 분홍빛 활자가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199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으로, 예부터 줄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으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10여 년 전의 새벽에 들었던 그 음성이 전해져 왔습니다. "날 따르라." 그때 그 음성은, 흰 옷을 입고 서 계시던 그 모습

은 환청도 환영도 아닌 바로 내게 직접 오셨던 그 분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참된 진리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그 분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침례를 망설일 수 없었고 깨끗하고 성스럽게 그 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는 내내,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같은 느낌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여러 자매, 형제들의 축복 속에, 저의 형제의 따뜻한 배려 속에 저는 다시 태어났고 날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런 영적인 눈으로 부모,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주변 사람이나 상황들도 저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들이었으며, 제게 주어졌던 시련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 만큼 받고자 원했던 세상적인 사랑일 때는 그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항상 불만이었습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형제를 보자, 그는 저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느꼈습니다. 저의 이런 진심이 형제에게 전해졌음인지, 기적같이 형제가 먼저 교회에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7월 2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일성도 회원으로서 곧고 좁은 길에 여러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제게 맞는 합당한 봉사의 일을 주셨으며, 형제와 함께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항상 겸손과 온유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날 따르라"는 똑같은 부름이 올 것입니다.'라는 몬슨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0년 동안의 감독 부름에서 해임되며

영동 스테이크 서초 와드 최승국 형제



지난 2000년 5월 어느 날, 스테이크장과 서초 와드 감독 해임 접견을 하고 난 후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5월에 침례를 받은 후 2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두 번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대전 삼성 와드에서 7년 동안 감독으로 부름을 수행했고 1991년 12

월에 서초 와드 감독으로 부름 받은 후 지금까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곳에서 감독으로 장기간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곁에서 열심히 도와 주신 보좌들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서초 와드 감독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현재의 모든 감독, 지부장과 또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서초 와드 감독으로 부름 받은 지 몇 개월이 채 안되었을

때, 90여 명의 와드 회원 중 40명 이상이 주변 신도시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와드 회원의 감소와 함께 와드 분위기가 급속도로 침체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을 막 시작했던 시기여서 재정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와드의 성찬식 참석수도 60~70여 명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침례가 거의 매 달 있었고 침례 받은 구도자도 전부 활동 회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간의 우정과 사랑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이때만큼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충실한 교사와 훌륭한 공과입니다. 잘 준비된 교사의 공과는 회원들에게 스스로 변화된 생활을 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신앙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회원들의 성찬식 말씀은 성찬식을 영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회원들간의 사랑이 증가되고, 선교사와 토론 중인 구도자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좋은 느낌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와드/지부가 구도자를 수용할 태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서초와 드는 복음 교리반 시간에 5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회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희 감독단은 활동 회원 명부를 가지고 평일의 2~3일 정도 저녁 늦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원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안식일에 불참하신 회원에게는 가정 복음 교사나 해당 역원을 통해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단 모임과 지침서 공부입니다. 저희는 감독단 모임을 평일 저녁에 매주 가졌습니다. 평일의 감독단 모임은 스테이크나 서비스 센터에서 오는 공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역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안식일 전에 여러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침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교리와 원리, 지침서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적인 일도 여러가지 일이 있으나 주님의 일은 더우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부산 서 지방부의 가족 역사 사업

서 지방부에서는 김영일 지방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모범으로 가족 역사 사업 및 성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부 가족 역사 센터는 이노원 형제를 비롯하여 대신 지부 신의휴 형제, 설영순 자매, 영도 지부 정운모 형제, 괴정 지부 이재열 형제, 장상희 자매, 구포 지부 장진규 형제, 이덕희 자매, 김해 지부 김민석 형제, 이복자 자매 등 그 외 많은 집회소 가족 역사 센터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가족 기록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봉사자들은 인터넷, 팩시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호적, 제적 등본을 발부받아 주일학교 시간에 가족 역사반을 운영하여 모든 회원들이 완전히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봉

사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금년 10월 1일부터 4대 이상 16분의 고조 부모님의 족보를 가지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구포 지부 가족 역사 센터 봉사자인 장진규 형제와 이덕희 자매의 경우 기록이 법적 문서상 잘 보존되지 못해서 의식을 해 드리지 못했던 몇 분의 조상을 찾아내어 기록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 직접 몇 번씩 관공서를 방문해도 찾을 수 없었던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관공서로 전화 문의를 했을 때, 그 담당자조차도 찾기 불가능했던 서류를 찾아내서 직접 전화로 통보까지 해주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꼭 도와 주신다는 간증을 갖게 되었고, 또한 괴정 지역에서 구포 지역으로 이사하여 환경에 잘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년 2월 6일 침례 받은 정은영 자매를 권유하여 성전 방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가족 기록서 작성 방법을 지도하여 6월 6일 지방부 성전 단체 방문에 참여하여 조상의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했고, 이에 간증을 얻은 임은정 자매는 7월 17일 단체 방문에 동행하여 다른 조상의 대리 의식을 행했으며, 계속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있다.

지방부 가족 역사 센터 이노원 형제는 1973년 가족 침례를 받을 당시 전임 선교사였던 박길자, 원연화 자매 선교사로부터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권고를 받고 10여 년간 준비하여 한국에 성전이

헌납되자 기록을 제출하여 가족 모두 참여하여 조상의 대리 의식을 행한 바 있는데, 최근에 지방부 가족 역사 담당 고등 평의원으로 부름받고 회원 모두에게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간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는 “오늘이 한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족 역사 사업의 말일 중의 말일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10월 1일 이후에는 본인의 허위 위임장으로 호적이나 제적 등본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2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입법 예고되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는 각 지부에서 회원들의 본적과 호주 명만 제출받아 봉사자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등본을 4대 조상까지 추적하여 발급받아 가계도상의 16분의 고조 부모님의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사랑과 헌납의 정신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통해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봉사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다른 일보다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업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자녀인 우리가 우리들의 조상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릴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것이고,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해 선행을 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며, 죽은 조상도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대리자요 구원자인 자녀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들의 사랑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신앙과 기도로써 지상의 대리자를 도우려 할 것이다.(정춘영)

지역 탐방

오동도에 뿌려진 한 톨의 씨—복음 전파 30주년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1. 여수 지부의 태동

여수 지역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폴 크리스텐슨 장로와 제임스 겔블랜드 장로가 광주를 떠나 약 4시간 정도의 버스 여행 끝에 여수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1970년 11월 15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이다. 그들이 여수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1970년 11월 17일, 여수시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시내 전체가 바라 보이는 종고산에서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여수 지역을 주님께 헌납함으로써 여수 지역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주님의 복음을 기다려 온 많은 여수 지역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해 11월 20일 여수 지부는 전도소로서 여수시 고소동의 작은 건물에서 4명의 선교사와 1명의 형제, 그리고 1명의 구도자에 의해 첫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전도소로서 첫 안식일 예배를 보았던 고소동의 작은 건물은 1971년 4월 11일 채임버스 장로에 의해 예배 건물로

헌납되었다. 같은 해 6월 18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온 여수 지부는 전도소가 아닌 여수 지부로서 첫 여수 지부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폴 트리베이트 장로가 초대 지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2. 여수 지부의 발전

여수 지부는 현재 순천 지방부의 뿌리가 될 만큼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초대 지부장 이후 1972년 9월 3일 김봉태 형제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당시 김 형제는 1950년대 부산에서 침례를 받은 후 여수 지역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후 조학현 형제가 지부장으로 부름 받아 봉사를 했고 1982년 10월 24일 여수 지부는 드디어 광주 스테이크 소속의 여수 와드로 거듭나게 되었다. 초대 감독으로 당시 지부장이었던 장용택 형제가 부름을 받

았는데 장용택 형제는 여수 와드에서 10년간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 시기는 장용택 형제의 헌신적인 봉사와 모범을 통해 여수 지역의 완전한 복음의 기쁨을 다지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뭉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수 지부 회원들의 모습.

쳐 서로간의 사랑으로 신앙을 키워 가던 시기였다. 1982년 8월 현 여수 지부의 표준 건물에서 있는 봉강동 현 건물 대지를 구입했고, 장용택 감독의 뒤를 이어 1992년 10월 11일 황인철 형제가 감독으로 부름을 수행했으며 2년 후인 1994년 3월 15일 표준 건물을 짓기 위한 교회 건물 기공식이 있었다. 약 1여 년간의 공사 끝에 1995년 2월 19일 새 교회 건물이 여수 지역에서 주님께 헌납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82년 광주 스테이크 소속 여수 와드로 승격된 이후 이곳에 또 다른 스테이크를 세우기 위한 초석으로 1996년 여수, 순천 지역을 순천 지방부로 광주 스테이크에서 분리함에 따라 다시 여수 지부로 바뀐과 동시에 류금남 형제에 이어 백용실 형제가 지부장으로서 부름을 받아 현재까지 봉사해 오고 있다. 그 후 여수 지부는 여천 지부가 분리하여 또 다른 건물에서 예배를 보게 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여수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장을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이 그리고 성급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루 하루 다르게 발전해 오고 있다.

1973년 당시에는 교회가 여수 지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순천 지역의 회원들은 많은 시간, 그리고 불편한 여행을 감수하면서 여수 교회의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1975년 11월 순천 지역에 전도소가 생기면서 그러한 불편은 감소하게 되었고 광주 지방부 시절 지방부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 여수에서 광주로 기차를 타고 5시간 정도 여행을 해야 할 정도로 불편했지만 많은 회원들은 그러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토요일 저녁 모임까지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토요일 모임 이후에 광주 지역 회원들의 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서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는 아직도 여수 지역 회원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때 여수 지역 성도들이 보여 준 신앙의 모범과 열성은 새로 자라나는 많은 젊은 청소년과 독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여수 지부는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74년 여수 지부에서 첫 선교사가 배출되었는데 바로 현재 순천 지방부의 지방부장인 조중현 형제의 자매인 김현아 자매이다. 그 후 여수 지부는 현재까지 25명이 넘는 선교사를 배출했고 그들은 현재 전국 방방곡곡의 소속 와드나 지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전해 받은 여수 지부는 이를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젊은 청소년과 독신들이 선교사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

3. 여수 지부의 미래

1970년 이곳 여수에 복음이 전파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다. 여수 지역의 초기 회원들로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신앙심과 영적인 풍성함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회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지부장을 비롯한 각 보조 조직 회장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회원들이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 산상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수 지부의 대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 일출을 보면서 새해의 계획과 각오를 기도를 통해 다지게 되는 이 행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 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회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한 새로운 회원의 관리를 강조하고 모든 회원들이 리아호나를 구독함과 동시에 이를 다른 회원들을 위해 기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회원들이 정식 교회 부름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교회 모임 후에 의자와 찬송가를 정리한다든지 등의 1인 1직책 정책을 추진하여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성년의 나이인 30주년을 맞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거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수 지역 회원들은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여수 지부는 이제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유산을 잘 지키고 가꿈으로써 이를 다시 세상에 전파해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2명



안선미
청주 스테이크
복대 와드
유타 주
템플 스캐어 선교부



조홍영
강서 스테이크
역곡 와드
뉴저지 모리스 타운 선교부

역원 변경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지부장: 변태수 (전임자: 정성호)

서울 서 스테이크

신림 와드 감독: 남궁병수 (전임자: 최창순)

노량진 와드 감독: 임성철 (전임자: 김준식)

청주 스테이크

한별 지부 지부장: 오동령 (전임자: 박노민)